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황태를 위한 헌사

하나의 음식 혹은 식재료가 우리네 삶과 얼마나 친숙한지, 혹은 친숙했는지는 그 명칭을 보면 안다. 친숙한 것일수록 다양한 명칭을 가진다. 명태가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낱것은 생태,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 새끼는 노가리라 한다. 잡는 방법에 따라서는 낚시로 잡은 것은 낚시태, 그물로 건져 올리면 망태라 한다. 이를 다시 근해에서 잡으면 지방태, 먼 바다에서 잡으면 원양태라 한다. 말린 것도 북어로 그치지 않는다. 물기가 약간 있게 꾸덕꾸덕 말린 것은 코다리, 겨울 찬바람에 노랑노랑하게 말린 것은 황태 또는 노랑태, 덕장에 걸 때 날씨가 따뜻해 물러지면 전태, 말리는 도중에 건 조대에서 떨어지면 낙태, 하얗게 마른 것은 백태, 검게 마른 것은 먹태라고 한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명칭이 더 있다. 하나의 생선에 이처럼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할 것이다.

2006년 60톤을 끝으로 2008년부터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명태는 대부분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등지에서 잡힌 '원양태'다. 이렇게 수입된 원양태 중에서 많은 양이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와 평창군 횡계리에서 황태로 만들어진다. 같은 명태를 말렸어도 북어와 황태는 다르다. 북어는 명태를 '그냥' 말린 것이다. 그냥 말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볕과 바람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린 북어는 수분이 빠져나가 푸피가 줄어들고 살이 딱딱해진다. 따라서 이를 다시 먹기 위해서는 물에 불리거나 흥두개 따위로 두들겨야 했다. '마누라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한다'는, 지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담은 그래서 만들어졌다. 황태는 밤이면 공공 얼었다가 낮이면 햇볕에 살짝 녹기를 2개월 이상 반복한다. 이러면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간이 생겨 몸이 투투하면서 살은 노랗게 변한다. 그래서 황태를 노랑태라 부르기도 한다. 황태는 함경도 원산의 특산물로, 196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에서는 '없는 물건'이었다. 함경도나 강원도나 명태가 많이 잡히긴 했지만

강원도는 북어로 만들었고, 함경도 원산에서는 독특한 지형을 이용해 황태를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원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해 원산과 비슷한 자연조건을 찾아 나섰다. 황태를 말리기 위해서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두 달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발견한 곳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계곡 입구였다. 이렇게 시작된 용대리 황태의 역사는 어인 60년이 되었다. 한 마리의 명태가 황태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시간과 50명의 손이라는 고단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 먼저 원양에서 잡은 명태가 주문진이나 속초·거진항에 부려지면 배를 갈라 알과 내장을 건어 낸다. 알은 명란정으로, 찡자는 창난것으로 만들어진다. 손질한 명태는 한계령과 대관령을 넘어 곧장 용대리 덕장으로 옮겨진다. 덕장에 도착한 명태는 현장에서 바로 씻어 '딛'이라는 거죽대에 건다. 명태가 덕에 걸리자마자 공공 얼어야 하므로 낮 기온이 적어도 영하 15도는 되어야 작업이 가능하다. 지금은 손질한 명태를 얼려서 덕장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작업이 그나마 수월해졌다. 이렇게

2개월 남짓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황태가 만들어진다. 행여 겨울 날씨가 따뜻하거나 늦은 겨울에 비라도 내리면 크게 망친다. 그래서 용대리 사람들은 황태 말리는 일을 하늘과 사람이 '7대 3'으로 하는 동업이라고 한다. 태백산에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이듬해 3월부터 황태는 시장에 출하된다. 노릇하고 폭신폭신향 속살 맛을 느끼기에는, 갖은 양념을 발라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굵거나, 찜통에서 쪄낸 찜이 제격이다. 하지만 겨우내 매서운 바람과 폭설을 맞으며 길어진맛을 즐기기에, 황태국 만한 것이 없다. 달보드레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개운한 맛은 흑한을 견디고 만들어진 황태라야만 가능하다. 흔히들 황태국은 술 마신 다음날 해장용으로 좋다고들 생각하는데 이는 절반만 옳다. 황태진국은 전날 쌀인 술독뿐만 아니라 며칠째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술기운까지 모조리 해독해 주는 신동한 음식이다. 그러나 굳이 해장이나 뭐나 따질 것 없이 수시로 먹어도 좋은 음식이다. 이는 지친 내 오장육부를 변함없이 달래 주고 위로해 주는 황태를 위한 헌사(獻辭)다. <맛 칼럼니스트>

社說

광주의 '5·18 전시회' 대만에 수출되다

최근 대만 입법원(국회)이 광주의 '5·18 전시회'를 공식 '초청'했다. 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끄는 핵심 단체도 내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아시아 각국에서 40주년을 앞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 초청으로 다음달 8일~22일 '전국의 5·18들-대만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5·18 행사가 해외 국가 기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초청은 대만 정부위원회인 '전환기 정의 촉진위원회' 소속 장관·국회의원·위원들이 지난 6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전국의 5·18들' 특별전을 관람한 후 이뤄졌다. 특히 대만 정부와 국회는 자국의 민주화운동인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 40주년을 기념하고 과거사 정리와 진상 규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과거사 청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홍콩 민간인권 전선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대표단 방문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홍콩은 물론 태국과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번안되어 널리 불리고 있다. 이들 사례는 5·18이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엔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이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 인권상' 시상과 아시아 인권활동가 초청 프로그램,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 아시아포럼 등 오월 정신 세계화 사업이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내년이면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다. 보다 체계적인 민주·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아시아 민주·인권 단체와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광주의 5·18이 세계의 5·18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폭언 등도 넘은 '학원 체벌' 대책은 없나

체벌이 사라지고 있는 학교 현장과 달리 광주지역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여전히 도를 넘는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똑같은 체벌이라도, 학교 교사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사설학원 강사들에게는 관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최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 남구 일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가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원에서는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에게 '팔다리를 한다'며 책상을 던지기도 했다. 또 다른 학원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거나 암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팔과 얼굴에 유성매직 등으로 수학공식을 적는 비인간적 행태를 일삼았다고 한다. '교육기본법'과 '광주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학원에서 다 너를 위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자녀에게 견디라고 권한다고 한다. 결국 이들 사설학원에서 체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성적 지상주의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은 인격 모독적인 체벌이 벌어져도 성적만 오르면 된다면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사설학원이라 할지라도 성적 향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광주 지역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적발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 처벌과 고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체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원들의 비교육적인 행태를 묵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의료칼럼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치아 교정 치료



이경민 전남대 치과병원 교정과 교수

환자는 먼저 몇 가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이라 불리는 옆 모습의 얼굴 방사선 사진, 위아래턱의 치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진은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이다. 교정 의사는 이 사진에서 머리뼈, 위아래턱의 길이와 서로간의 각도를 재는 등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상태를 진단하며,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운다. 교정 의사가 그때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진단 분석 과정이다. 교정 치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2~3년 동안의 교정 치료가 잘 이뤄지는 것인데, 바로 교정 치료과정에서 첫 단추를 꿴는 과정이 진단 분석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진단 분석을 위해 먼저 하는 작업은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탐지하고, 이의 위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유는 방사선 사진에서 얼굴뼈의 여러 부분이 서로 중첩돼 나타나는 탓이다.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히 탐지하고,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

력, 그리고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 최근 인공 지능이 바탕이 된 분석 프로그램들은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을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복잡한 분석 과정을 마친다. 물론 이 결과를 교정 의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 지능이 정확히 분석했는지 점검하고 때로는 수정도 한다. 기계는 어디까지나 기계이므로 수년간 쌓인 의사의 임상 노하우를 초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분석 과정에 참여하면 교정 의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 분석 과정이 완료되면 교정 치료에 들어간다. 영화나 TV프로그램에서 보았듯이 치아에 브라켓을 붙이는 과정을 시작으로 2~3년간의 긴 교정 치료가 시작된다. 사람의 치아는 제일 후방에 있는 사랑니라 불리는 지지를 제외하고 위, 아래 28개로 구성돼 있다. 이들 치아에 브라켓을 붙일 동안, 환자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하며 교정 의사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위치로 치아에 브라켓을 붙여야 한다.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치과학에 적용되면서 이러한 과정도 보다 디지털화돼가고 있다. 치아 영상을 소프트웨어

어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이고 컴퓨터상에서 브라켓을 부착한다. 잘못 부착하면 다시 지우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시간애 쫓길 이유도 없다. 모니터에서 치아 영상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 있다. 모든 치아에 브라켓을 부착했으면 이 파일을 3D 프린터로 전송하고 단 몇 초면 전 치아에 브라켓을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트랜스퍼 트레이(transfer tray·브라켓이 정해진 위치에 자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주는 장치)가 출력된다. 출력된 트레이에 준비된 브라켓을 끼우고 환자의 구강 내에 위치시키면 전 치아에 브라켓을 정확한 위치로 한 번에 부착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교정 치료 과정에 적용하면 환자는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줄고 동시에 진료 시간도 짧아져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 지능이 적용된 치아 교정 치료 과정은 기존 치료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정확성 또한 높다. 향후 치아 교정 치료에서 인공 지능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교정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박안수 농협청년교육원 교수·경제학 박사

러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최초로 4207만 원에 이르러 모처럼 희망적이었지만, 작금의 상황은 농업·농촌에 대한 우울한 분위기를 지울 수가 없는 듯 보인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이어지는 다자간협상(DDA), 최근 농업이 비교우위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한미·한중 FTA는 농업과 농업인들이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농어촌 상상 기금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에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실 강제 규정이 없는 탓에 이제 겨우 549억 원이 조성되

어, 목표 대비 18%에 그치고 있다.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많은 농업 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당장 농업 분야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향후 타결될 협상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우리 농업이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 (일반 품목)로 낮아지고, 양념 채소류의 타격도 클 수밖에 없으며, 현재 대부분 쌀 변동 직불금으로 쓰이고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인 농업 보조금 총액(AMS)의 한도 역시 연간 1조 4900억 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협상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했다.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정정상위원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농업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으로 확대하고, WTO 차기 농업 협상에서 농업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공익형 직불제 등 WTO가 허용하는 보조 정책을 확대하도록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농업 예산 가운데 18% 수준인 직불제 예산을 단계적으로는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우리도 헌법에 명시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농산물 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힐 때마다 정부는 농업 피해 보전과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농업인이 만족할 만한 대책과 보상이 없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농업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無等鼓

'비행운'(飛熊雲)이라는 이름의 그룹이 있다는 걸 안 건 김애란의 소설집 '비행운'(2012)을 읽고 나서였다. 책 제목을 접했을 땐 늘 등장하는 김애란 소설 속 인물들의 불우함을 떠올리며 '비행운'(非幸運)을 연상했다. 비주류로 살아가는 소설 속 주인공들은 늘 행운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중의적 의미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에 등장하는 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생기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의 구름을 뜻하는 '비행운'(飛熊雲)이었다. 사전엔 '비행기가 높이 날 때 뿜어내는 가스가 찬공기에 부딪쳐 생기거나 비행기가 지나간 뒤에 교란된 공기층의 과포화 수증기가 응결시켜 생기는 구름'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구름을 애써 찾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여행 중 사진을 찍을 때면, 파란 하늘과 다양한 구름이 어우러진 앵글이 왠지 멋져 보여 잠시나마 '구름 찬양'을 하곤 했다. 고향 제주도에 올레길을 낸 서명숙의 '서귀포를 아시나요'를 읽다 '구름'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발견했다. '사사저저'

편집장 시절, 신임 대표와 맞지 않고 민하던 저지는 비양도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눈물을 쏟아 내고 매일로 사표를 보냈다. 이후 네발 트레킹 등에서 그가 위로받은 건 '구름'이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어떤 모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름하여 '구름감상협회'(cloudappreciationsociety.org). 2004년 '구름 추적자'라고 칭한 영국인 개인 프레더피니가 만든 이 사이트에는 회원들이 말 그대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곳엔 수많은 구름 사진과 동영상 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회원은 4만5000명. "우리는 구름이랄 공기에 부딪쳐 생기거나 비행기가 지나간 뒤에 교란된 공기층의 과포화 수증기가 응결시켜 생기는 구름'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구름을 애써 찾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여행 중 사진을 찍을 때면, 파란 하늘과 다양한 구름이 어우러진 앵글이 왠지 멋져 보여 잠시나마 '구름 찬양'을 하곤 했다. 고향 제주도에 올레길을 낸 서명숙의 '서귀포를 아시나요'를 읽다 '구름'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발견했다. '사사저저'

'구름 감상 협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